

# 2007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참관기



현대건설 기술연구소  
하 주 형 과장



'2007 국제도로교통박람회'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. 한국도로교통협회와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, 일본, 중국 등 10개국 156개사가 참여해 도로·교량·터널의 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신공법을 소개하고 교통표지 안전시설과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, 주차설비 등을 선보였다. 또 일본, 태국 등 약 20여개국의 도로담당 고위 공무원과 도로관리 회사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도로기관장(HORA) 회의가 열려 도로 교통 관련 재난위험관리법과 각국의 교통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.

우리 현대건설에서는 이번 박람회에서 독립부스를 설치·운영하여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와 기술력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. 이번 박람회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전문 디자인 업체 및 부스 시공업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첨단 디자인의 부스를 제작할 수 있었고 부스의 내부 콘텐츠도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다.

부스 내부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회사가 시공한 세계 각국의 도로·교통 구조물의 전체적인 개요와 그 구조물들을 도로, 항만, 공항으로 분류하여 판넬로 제작하여 전시하였고, 구조물 시공에 관련되는 기술을 PDP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프리젠테이션하였다. 그리고 우리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'힐스테이트'의 광고 판넬과 동영상을 동시에 전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.

또 우리회사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참관인들이 우리회사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모보드를 마련하였고, 행운의 과자 이벤트, 현대건설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.

2005년 세계도로교통박람회 때도 우리 회사 부스를 설치·운영하였었는데, 그 때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스디자인과 콘텐츠로 훨씬 큰 호응과 홍보효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.

개인적으로는 박람회 하루 전날 부스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밤늦게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일 입원까지 하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성공적인 박람회 참여로 의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.